

[리빙]

가족 사랑·건강 '주말농장'서 다져요



광주시 북구 장등동 '해피팜 주말농장'에서 텃밭을 가꾸는 가족들이 밭 고르기에 여념이 없다. (해피팜 주말농장 제공)

■ 광주·전남 주요 주말농장

지역	이름	규모(평)	문의처 및 전화번호
광주	황근의초농장	400	대촌농협 062-374-6021
	5·18주말농장	1500	광주농협 062-250-5121
	동곡주말농장	500	동곡농협 062-943-3020
	하나농장	1500	대촌농협 062-374-6021
	철석농장	1000	대촌농협 062-374-6021
	삼연농장	4000	삼도농협 062-943-6000
	봉산농장	3000	서창농협 062-373-6970
	신동농장	600	임곡농협 062-952-8005
	송암농장	2000	남광주농협 062-600-3325
	해피팜농장	2000	광주농협 062-250-5121
곡성	스타농장	900	경민농협 061-362-1009
	이서방농장	900	경민농협 061-362-1009
	샛터농장	100	목곡농협 061-362-5105
	깊은산속달밭농장	900	경민농협 061-362-1009
나주	혁신주말농장	500	금천농협 061-331-7241
	안아울림농장	1700	금천농협 061-331-7241
담양	봉산관광농원	500	봉산농협 061-382-6781
고흥	고흥농협주말농장	600	고흥농협 061-833-8001
광양	용왕농장	600	광양농협 061-791-8001
무안	허브와농은자연	100	봉민농협 061-452-3601
진도	영훈농장	300	농협진도군지부 061-544-3902
순천	컴퓨터주말농장	300	별양농협 061-742-7481

(자료:농협 광주·전남지역본부)

“올 어린이날 연휴는 주말농장에서 보내면 어떨까?”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현대인의 주말 풍경이 크게 달라졌다. 올해는 특히 초·중·고등학교에서 매월 두 차례 토요일에 수업을 하지 않는 ‘놀토’가 시행돼 부모들의 고민이 커졌다. 아이들이 쉬는 주말마다 놀이공원을 갈 수도 없고, 여행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일주일 동안 도시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아이들과 함께 자연에서 풀어보자는, 특히 자신의 손으로 직접 씨를 뿌리고 물을 준 작물을 수확하는 기쁨은 자녀들에게는 산 교육의 장으로 그만큼이다.

농협, 광주 13·전남 43곳 운영

최근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주말농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농협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난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말농장은 주5일 근무제 등의 영향을 받아 2000년 들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농협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광주에서 운영되는 주말농장은 13곳, 전남은 43곳이다. <표 참조>

이용자 수가 꾸준히 늘어 광주의 경우 지난 2003

년 500여 가족이 이용하던 것이 올 5월 현재 2천 가족을 넘어섰다. 전남 지역 주말농장 이용자도 지난해 800여 가족에 이어 올해는 1천 가족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떻게 참여하나=농협은 광주·전남 지역의 농장주들과 연계해 도시민들이 가족들과 텃밭을 꾸밀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텃밭의 경우 상추, 고추, 쪽파, 무 등 온갖 채소들을 가꿀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식탁에서 맛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5평 1구좌가 기본이며 가격은 농장의 위치·형편에 따라 전남 지역은 연간 3만~5만원 선이고, 광주 지역은 7만원 가량이다. 사과, 배, 단감 등 과수원은 그루 당 2만~30만원, 한 그루를 임대받아 꽃이 필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 재배하는 시스템이다.

기본적으로 농기구를 무료로 대여해준다. 씨앗은 살비로 제공된다. 5평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1만원 어치면 충분하다. 농장주들은 농사에 ‘문의함’이 심상인 참가자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 분양은 연초에 시작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농사 시작하기=주말농장의 장점 중 하나는 가족 구성원 간의 공간대 형성이며, 함께 밭을 갈러 작물을 수확하는 만큼 무슨 작물을 키워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떤 작물이 얼마나 자랐는지 풍부한 대화의 소재가 된다. 가족회의를 통해 기를 작물이 정해지면 아이들과 함께 농사일지를 써보는 것도

좋다.
 파종시기는 작물에 따라 다르다. 감자·시금치·부추·상추 등은 3월 중순에 씨앗을 뿌린다. 알타리·쪽파·청경채 등은 4월 중순부터, 방울토마토·고추·가지·토마토·오이·참외 등은 5월 10일 경부터, 고구마는 5월 말부터, 김장배추는 9월 경부터 각각 파종을 시작한다.

여기도 즐기고 자녀교육도 시키고

파종 후 1~2주가 지나면 새싹이 돌아온다. 동시에 잡초도 자라기 때문에 ‘풀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잡초는 그냥 열심히 보이는 대로 뽑아주는 것 외에 왕도가 없다. 촘촘하게 씨앗이 들었다면 이젠 쉼이 주기를 할 때다. 영긴 곳부터 차례로 솟아 솟아 뒤에는 여러 번에 걸쳐 뜰뽕 물을 주는 것이 좋다.

덧거름은 포기과 포기 사이, 이랑과 이랑 사이 등 뿌리가 뻗어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준다. 모종을 옮겨 심은 경우는 옮겨고 10일 가량 지난 뒤 덧거름을 준다. 파종 후 1~2달이 지나면 본격적인 수확이 가능하다. 아이들에게 제 손으로 기른 채소를 먹게 할 수 있다.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인터뷰

주말농장 6년째 운영 서경훈 씨



광주시 북구 장등동에서 6년째 주말농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경훈(40·사진)씨. 특별한 비결을 묻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서씨는 지난 2000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말농장 붐이 일어났을 때 1천500평 규모로 두 가족을 맞이하면서 광주에도 농장을 열었다. 하지만 남보다 일찍 시작한 탓에 그만큼 고생도 많았다.

“180여 도시가족 ‘자연’을 느껴요”

광주에 사는 30~40대 직장인들은 대개 전남 지역 시골에 부모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골에서 부모님 농사를 도와드리지도 못하는데 웬 주말농장?”이란 인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

“잡채 주말농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골 집에서 부모를 돕는 농사와 주말농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농사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2천여평 규모에 180여 가족들이 ‘주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서씨는 “사실 주말농장에 오시는 분들은 모두 자연과 흙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특히 아이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산교육은 없는 것 같다”고 덧붙혔다.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전남 생태귀농학교 연다

5월 16일~6월 27일 광주 가톨릭대 곡성·장흥 등서 ‘농사 짓기’ 실습도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적인 삶을 좀더 체계적으로 알아가고 싶은 이들은 이른 공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전국귀농운동본부는 오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두 차례에 걸쳐 15번의 강의로 진행되는 ‘2006년 제11기 광주·전남생태귀농학교’를 운영한다.

귀농학교에서는 단순히 농사짓는 법 외에 자연과 흙에서 분리된 삶을 살고 있

는 현대인의 생활을 반성하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도록 돕는다.

이론 교육은 광주시 서구 쌍촌동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이뤄지며, 전체 강의 중 두 번은 휴일 곡성과 장흥 등 현장에서 진행된다.

수강료는 개인 6만원, 부부 10만원이며 단일 강좌도 수강할 수 있다. 문의 및 접수는 가톨릭 농민회에서 받는다. 전화 062-373-6185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생활정보

다양한 생활정보와 서비스 안내

자동차

자동차 관련 정보와 서비스

부동산

부동산 관련 정보와 서비스

교육

교육 관련 정보와 서비스

건강

건강 관련 정보와 서비스

여행

여행 관련 정보와 서비스

금융

금융 관련 정보와 서비스

문화

문화 관련 정보와 서비스

스포츠

스포츠 관련 정보와 서비스

유통

유통 관련 정보와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관련 정보와 서비스

중고자동차 전자중매인·판매

신용·현금·중매인·판매

010-8427-9997 (유)홍길동 자동차 매매상사